

통원 수술 클리닉이란

김 준 식

(서초구 반포동 김준식 정형외과의원 원장)

31세의 직장인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서울 근교로 등산을 갔다. 늦가을의 정취를 잔뜩 품고 있는 단풍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산길을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더 좁은 산길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 일어서려는데 오른쪽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부인의 부축으로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무릎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반대편 무릎에 비해 현저히 부어 있었다. 도저히 출근을 할 수가 없어서 전화로 결근을 신청하였으나 말고 있는 부서가 연말 수출 비상으로 바쁜 지라 회사 일이 눈에 아른거려 미안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다.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은 결과 무릎 안의 인대가 끊어졌다고 하면서 수술이 필요하며 적어도 입원을 1주일 이상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리저리 수소문 한 결과 직장의 한 선배가 자기도 작년엔 스키를 타다 다쳐서 무릎 인대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서

한 의사를 소개해 주었다. 마침 집에서 멀지도 않아 찾아가 보니 진단 결과는 같았다. 통증을 덜어 주고 무릎에 간단한 보조기를 차고 나니 당장은 걸을 수가 있었다. 직장에 다니다가 수술이 예약된 날 아침 일찍 입원을 하여 아침에 관절경 수술로 무릎 안의 인대 재건 수술을 시행 받고 저녁에 퇴원하였다. 다음 날부터 회사에 나가 일을 볼 수 있었다.

28세의 젊은 주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줄곧 미국에서 대학생 생활 및 직장생활을 한 후 결혼하여 남편의 사업 때문에 귀국하였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개업 준비로 한참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팔뚝이 부러지고 손목 관절이 탈구되었다. 여러 친지들에게 수소문 한 결과 미국과 같은 통원 수술 클리닉이 있다고 하였다. 예약된 날 아침 일찍 입원하여 아침에 수술을 받고 당일 퇴원하여 다음 날부터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루 종일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서울의 교통 흐름 같이 바쁘게 살아가는게 우리의 현실이고 보니 단 며칠의 공백이 엄청난 손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회사에서의 인건비는 이미 한계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나 질병이나 사고는 예고없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도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 위에서 예시한 경우와 같이 통원 수술 클리닉이 아직은 소수의 환자에게 적용이 되지만 앞으로는 그 적용 범위가 커지리라 본다. 통원 수술 클리닉이 성공하려면 수술 전 검사가 완전해야 하고, 수술 중 감염의 기회가 적어야 하며 대개 적은 절개를 통한 수술, 즉 관절경 수술 기술이 고도로 숙달되어야 한다. 수술 후에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

(자세한 문의는 02-595-4946~8)